

학생부 입상작 시상전



▶광주시교육감상 최형준작 '마스코트'



▶전남도교육감상 김선우작 '사천왕'



▶우수상 전하연작 '엄마께'

인/터/뷰 제17회 광주매일신문 사진대전 영예의 대상 정기섭씨

“빛과 반사의 순간에 담긴 새로움, 사진의 깊이 탐구 여정 계속될 것”



“광주매일신문사에서 주최하는 사진 대전에서 큰 상을 받게 돼 정말 기쁩니다. 여러 공모전에 출품해봤지만 이번 수상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잘했다는 격려가 아니라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동안 배운 걸 바탕으로 제 나름의 색깔을 더욱 깊게 찾아가려 합니다.”

제17회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정기섭(75·사진)씨가 밝힌 소감이다.

정씨의 수상작 ‘유혹’은 충장로의 웃가게 거리를 건다 마주친 유리 쇼윈도 반사를 통해 탄생했다. 유리판에 비친 마네키의 웃과 길거리 풍경이 한 화면 안에서 겹쳐지며 현대 문명의 화려함을 시각적으로 포착한 작품이다. 그는 “양쪽에서 빛이 들어와 반사되며 전혀 다른 공간이 하나로 합쳐지는 장면이었다”며 “사진을 배우며 이런 표현을 ‘시각적 예술(visual art)’이라 부른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작품은 광주대 평생교육원에서 사진을 배우며 쌓은 경험과 최영태 지도교수의 가르침이 큰 밑바탕이 됐다.

“교수님이 늘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남이 안 한 새로운 기법을 시도해 보라는 말이죠. 물에 비친 모습이나 반사된 장면처럼 낯선 구도를 찾아내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시도가 이번 작품에 잘 녹아든 것 같아요.”

정씨는 직장 생활 시절부터 가족과 친구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사진과 인연을 맺었다. 본격적으로 사진 공부를 시작한 건 퇴직이후인 2016년부터다. “그전엔 구도도 모르고 그냥 찍었죠. 그런데 배우면서 시선이 달라졌습

니다. 배운 대로 실천하다 보니 사진의 깊이가 달라졌어요.” 현재 그는 광주사진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동호회 출사를 함께 다니고, 새로운 촬영 기법을 꾸준히 익히고 있다. 특히 반사·그림자·빛의 굴절을 활용한 촬영에 관심이 많으며, 최근에는 드론 촬영에도 도전하고 있다.

정씨는 “사진이라는 게 단순히 장면을 담는 게 아니라, 눈앞의 풍경 속에서도 다른 세계를 발견하는 일”이라며 “그 과정이 매번 새롭고 설렌다”고 덧붙였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그는 시각적 예술로서의 사진을 더 탐구하고 싶다는 소망을 이야기했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반사, 그림자, 물의 반영처럼 현실과 비현실이 뒤섞이는 순간에 매력을 느껴요. 그런 장면들을 계속 기록하고, 언젠가 게 인전으로 선보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씨는 “사진은 늘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해주는 예술”이라며 “앞으로도 기록에 남을 만한 작품을 꾸준히 남기겠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완성도·표현력 모두 돋보여…참가 열기 속 성황리 마무리”

윤관문 심사위원장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역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시선과 개성을 담은 작품들이 출품돼 수준 높은 경연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광주매일신문과 사진대전동우회의 꾸준한 노력, 많은 분들의 성원 덕분에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17회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된 윤관문(사진) <대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지회장은 지난 21일 출품작 심사를 마치고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17회째를 맞은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은 올해도 1천500여 점이 출품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전국은 물론 미국 워싱턴에서까지 작품이 접수되며, 사진 동호인들의 뜨거운 관심이 여전한

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특히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은 입상자들에게 상장·부상을 수여할 뿐만 아니라 초대작가 제도를 운영하고, 한국사진작가협회 임회 점수를 인정해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큰 호평을 받고 있다.

광주매일신문이 주최하고 광주매일



제17회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심사가 지난 21일 진행된 가운데 심사위원들이 작품을 선별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신문 전국사진대전동우회, <대한국사진작가협회>가 주관해 지난 21일 최종심사를 마친 제17회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에는 우수한 수준의 작품들이 대거 출품돼 심사위원들의 찬사를 받았다.

심사에는 윤관문 심사위원장 <대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을 비롯해 최복수, 석도상, 이호범, 한현정, 김병철 심사위원이 참여했으며 이와 함께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최덕환 운영위원장, 이광남, 허경재, 김철, 박규숙, 백순현이 참여했다.

이번 대회에는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 사진가들의 작품이 접수됐다. 독창적이고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주를 이뤘으며 그중에서도 사진 기법을 잘 활용하면서도 내용

적 측면이 풍부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윤관문 심사위원장은 “올해 출품작들은 표현력과 구성력에서 한층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줬다”며 “특히 피사체를 단순히 담는 데 그치지 않고, 구도를 정교하게 구성한 작품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대상작 ‘유혹’은 도시의 일상 속에서 반사와 겹침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낸 수작이었다”며 “빛과 유리, 피사체의 구도를 세련되게 활용해 시각예술적 완성도를 높였다”고 평했다.

이어 “학생 출품작에서는 젊은 세대의 솔직한 감정과 참신한 표현력이 돋보였다”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구도와 신선한 발상으로 자

신만의 시선을 담아낸 작품들이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위원장은 “매년 수준 높은 대회를 이어가기 위해 애써주시는 광주매일신문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수상자들에게는 진심 어린 축하를, 아쉽게 수상하지 못한 분들께는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꾸준히 나올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상작은 24일 본보 홈페이지와 <대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시상식은 다음달 12일 오후 2시 광주문화재단 4층 다목적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학생부광주시교육감상 최형준(광주 상무고1)

“사진으로 거둔 큰 결실, 더 뜻깊어요”

“그동안 대회에 몇 번 출품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은 건 처음이에요.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 더 놀랐고 기쁩니다.”

학생부 공동 대상 중 광주시교육감상을 받은 최형준(광주 상무고 1)군은 수상의 기쁨을 이렇게 전했다.

최군은 “사진을 찍기 시작한 지 2-3년쯤 됐는데, 이번 수상으로 사진의 매력을 다시 느꼈다”고 말했다.

사진을 향한 관심은 외할아버지로부터 비롯됐다.

“사진 찍는 걸 즐기시는 외할아버지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흥미가 생겼어요. 같이 산책하거나 여행을 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장면이 보이면 사진을 찍었죠.”



이번에 출품한 작품은 외할아버지, 동생과 함께 금남공원을 거닐다 찍은 동상 사진이다.

“산책 중 우연히 마주친 동상이 귀엽고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셔터를 눌렀어요. 조형물인데도 표정이 살아있는 듯해 눈길이 갔어요.”

앞으로도 최군은 일상 속 작은 장면 속에서 자신만의 시선을 찾아가며 꾸준히 사진을 찍을 계획이다.

“가족들과의 추억여행 속에서 좋아하는 사진을 찍으며 순간을 기록하고, 그 시간들을 오래 기억에 남기고 싶습니다.”

/최명진 기자

●학생부전남도교육감상 김선우(서울 경문고2)

“소중한 순간 되새기는 사진 찍고 싶어”

“가족들과 여행을 자주 다니는데, 그때마다 추억으로 간직하기 위해 꼭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 소중한 추억 중 하나가 이렇게 큰 상으로 이어져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학생부 공동 대상 중 전남도교육감상을 수상한 김선우(서울 경문고 2)군은 가족여행 중 찍은 작품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군의 출품작은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촬영한 ‘사천왕 조각상’으로, 전통 신앙의 수호신을 현대적 공간 속에서 색다른 시선으로 포착했다.

“사천왕은 절 입구에서 부처님과 불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알고 있는데, 송도에 있던 조각상은 오히려 마귀 같



은 형상으로 보여 신기한 마음에 카메라를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사진 찍기를 즐겨왔다는 김군은 사진을 ‘시간이 흘러도 그때의 감정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추억의 예술’이라 표현했다.

김군은 “예전에 찍은 사진을 열어보면 그 시절의 감정이 고스란히 되살아나 설렌다”며 “추억뿐만 아니라 인물, 동물, 풍경, 그리고 역사적 유물들을 찍어보고 싶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사진을 더 재밌게 찍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